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 “관광·경제·문화 4차 산업혁명 접목...新 강진시대 연다”

## 강진원 강진군수

“압도적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강진을 관광객의 대거 유치와 4차 산업 혁명의 적극적인 접목을 통해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5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민선 8기의 비전과 관련 ‘인구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기적을 통한 신(新)강진 시대의 개막’을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군수는 신(新)강진 시대의 핵심 목표인 일명 ‘5555 전략’ (연간 관광객 500만명 유치, 신규 일자리 5000개 창출, 가구당 연소득 5000만원 실현, 강진 인구 5만명 시대 달성)을 통한 신(新)강진 시대를 규정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수도권에서 밀고 인구나 규모가 작은 강진군도 충분한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며 “이제는 누가 먼저 4차 산업의 혁명의 기술을 어느 범위까지 활용하는지가 미래 발전의 열쇠를 쥐는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구 소멸 위기의 강진을 구할 복안은. ▲ 강진은 압도적 고령화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에 이어 인구 소멸 위기도 심각하다. 동시에 강

## ‘4차산업혁명지원센터’ 설립...예술 콘텐츠 연결·MZ세대 소통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귀농·귀촌·유학 ‘푸소 시즌2’ 준비

진은 남도답사1번지의 아성을 지켜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중 하나이다. 이 지점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해법이 시작된다. 신(新)강진시대의 ‘5555 핵심 목표’ 가운데 첫 번째가 연간 관광객 500만명 유치로 군의 인구가 1명 줄어들 때, 그만큼의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내 감소된 소비 대체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도시의 규모에 따라, 연간 적정 수준의 숙박 여행객과 당일 여행객을 유치하면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를 따라잡을 수 있다. 특히, 초연결, 초지능의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관광뿐 아니라, 행정,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4차 산업 혁명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e-커머스를 지원하고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며, 예술인 콘텐츠를 연결하는 한편, 미래 주역인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관광산업의 봄을 일으킬 것이다.

관광뿐 아니라, 행정, 경제, 문화 등 전 분야에서 4차 산업 혁명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4차산업혁명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e-커머스를 지원하고 관광 플랫폼을 구축하며, 예술인 콘텐츠를 연결하는 한편, 미래 주역인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관광산업의 봄을 일으킬 것이다.

-강진은 푸소(FU-SO)로 명성을 떨쳤다. 전원주

택 2000세대 조성 등으로 ‘푸소 시즌2’에 나선다고 하는데 푸소가 히트했던 것만큼 기대가 크다.

▲ 푸소 시즌1이 체류형 농촌관광의 새로운 형식이었다면 시즌2는 심화 버전으로 머물다 가는 관광객이 아닌 강진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농촌으로의 장기 유턴’ 개념이다.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은퇴자나 농촌에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하는 초보 농부, 시골로의 자녀 유학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른다.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은 농어촌정비법 제64조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를 근거로 다음 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조성 가능한 신규마을을 위치 조사 및 빈집 리모델링 자원조사, 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전원주택 조성 타당성 검토, 지역 특색 축진을 위한 강진군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 모색 등이 세부 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도 눈에 띈다. 어떤 기능과 역할이 주어지나?



▲ 소상공인진흥재단은 지역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복안으로 군 출연기관이지만, 운영은 민간에게 맡기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둘 예정이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외식업, 자영업자 상품의 흡소빙

판매전략 수립, 소상공인이 직접 유튜브 등을 통해 상품을 홍보 및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기술 지원, 판매 웹페이지 및 플랫폼 개설, 해외 수출 시 통관 사무 지원, 소상공인 자녀 학자금 지급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여기에 청년 등 군민이 창업을 희망할 경우 제1금융기관의 신용 보증과 다양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달료와 택배비를 지원해 소상공인은 판매가를 낮춰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진흥재단 운영기금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되, 우선 매년 군에서 10억원을 출연하고,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과 유력 기업의 기부금 조성을 통해 마련할 것이다.

-직원과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 민선 8기 정책 방향과 현안 사항에 대해 모든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하기 위해 회의 상황을 SNS를 통해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특히 가장 군민과의 접점이 많고, 사업의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과의 소통은 일방적인 지시를 떠나 군수와 직원이 서로 교감하며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자리를 의미한다. 우리 사회의 변화의 모멘텀인 MZ세대와의 소통도 중요하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30분내 보전·60분내 문화·5분내 응급상황 대응

### 강진군, 농림부와 농촌협약... ‘365생활권’ 구축 300억 확보

강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300억여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지역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각 지자체의 특색에 맞는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365생활권’ 구축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은 농촌협약의 장기발전계획으로 30분

안에 보육·보전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365생활권’ 실현, 강진만의 사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365생활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만인(灣人/萬人)의 행복, 365 강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농촌 미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쓰는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강진군 일원에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총 325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형교통모델,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등 생활SOC 기초인프라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농촌협약으로 강진군만의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촌공간의 가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면 지역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국악 아이돌’ 김준수 강진 명예홍보대사 위촉

### 팬카페는 군에 쌀·라면 기증

국악인 김준수(사진)가 강진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강진군은 최근 작전면 출생인 국악인 김준수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준수는 전남도 무형문화재 제29-4호 판소리 ‘수궁가’를 이수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무대에 서기도 하는 등 국악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JTBC 풍류대장’ 준우승, KBS 국악대상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뮤지컬 활동과 함께 ‘불후의 명곡’, ‘너의 목소리가 보여’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은 세대를 아우르며 국악계의 아이돌로 인기 급부상 중인 김준수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함에 따라 강진군 홍보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수 팬카페 ‘준수한 소리’ 회원들은 위촉식이 열린 지난 14일 쌀 500kg과 라면 400개를 강진군에 기증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강진읍지사협 “어르신 더위 잘 이겨내세요”

### 취약계층 100세대에 삼계탕 전달

강진군 강진읍지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영일, 김동일)가 초복을 맞아 지난 14일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

〈사진〉

이번 행사는 강진군에서 주관한 복지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과 새마을부녀회장 20여명은 영양 가득한 재료로 삼계탕을 끓이고 시원한 열무김치를 담아 행사를 준비했다.

강진원 군수와 협의체 위원, 각 마을 담당 직원들은 각 마을 복지이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100세대를 찾아 삼계탕과 열무김치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김동일 민간위원장은 “올해로 4년째 진행되고 있는 나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삼계탕을 받고 많은 분들이 힘을 얻어 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일 강진읍장은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 연령층에 돌봄 중심 복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